



# 지구촌 오지 들여다보기

세계 거의 모든 곳이 문명화한 오늘날 오지에 드물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이나 자연 생태는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곤 한다. 이런 오지는 코로나19 이전 해외여행이 자유롭던 시기에도 방문하기 쉽지 않았다. 북반구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외신들이 드물게 보내오는 지구촌 오지의 사진들이 반갑기 그지없다. 예멘에선 외딴섬의 독특한 나무 생태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에서는 야생코끼리 떼가 출몰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인도 농촌에서 물소를 타고 가는 소년들의 목가적인 풍경과 티베트 초원 지역에서 풀을 뜯는 야크 떼와 주민들의 모습도 전해졌다.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해변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는 모습은 한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글 조보희 기자



<< 중국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180여km  
 떨어진 당송(當雄)현의  
 초원. 원주민들과 그 뒤로  
 멀리 풀을 뜯는 야크 떼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인도 아삼주(州)  
 가우하티의 한 들판에서  
 물소를 타고 가는 소년들  
 [AP=연합뉴스]

>> 야생코끼리 서식지가 있는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아시아코끼리 15마리가  
 보호구역을 빠져나와  
 도시를 활보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신화=연합뉴스]





예멘 남부 소코트라섬의 사막 장미가 꽃을 피웠다. 인도양 북서부에 위치한 소코트라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고유한 동식물이 잘 보존된 곳이다.

[AFP=연합뉴스]

멸종위기종인 이집트 독수리가 소코트라섬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AFP=연합뉴스]

소코트라섬의 한 소년이 붉은 송진이 나와 '용의 피'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용혈수의 송진을 보여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 섬 소년이 용혈수를 오르려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베네수엘라 카나리아 국립공원에서 원주민 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이곳은 정상부가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절벽으로 단절된 곳이라 독자적으로 진화한 동식물이 많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의 해변에서 시민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 달마섬 해안에서 어린이들이 고기잡이용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쿠투비아 모스크 앞에서 물장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할리우드의 영화 세트장이 있어 호황을 누렸던 이곳의 영화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FP=연합뉴스]



3세기 말 로마 시대에 지어진 튀니지 엘젬의 원형경기장 앞에서 한 관광객이 낙타를 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콩고민주공화국 중부 카사이 지역에서 흙벽돌을 만들고 있는 벽돌공들  
[AFP=연합뉴스]